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약속된 미팅 시간 준수!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MARCH
2019

VOL. 448



COVER STORY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약속된 미팅 시간 준수!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횟수가 잦거나 장시간 이어지는 회의는 오히려 본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직

장 내 회의'에 대한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 51.4%가 보여주기식 잦은 회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분 회의> 저자 정찬우 박사는 회의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시간을 지키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시간 운용, 명확한 안건과 목적 설정 등 요건을 갖춘 회의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우리

- 04 핵심가치 히어로**
 [열정] 전정도 사우(장치2과)
- 06 핵심가치 현장**
 용도개발/기술지원팀
- 08 고전 속 핵심가치**
 [나눔] 춘풍풍인
 따뜻한 봄바람을 다른 이에게 불어넣다
- 10 달리는 희망 주유소**
 대현주유소
- 12 가족 추억공작소**
 주성민 사우(PP포장/출하과)
- 14 달콤한 퇴근길**
 이근현 사우(자재관리팀)
 [보디빌딩]
- 16 함께하는 풍경**
 - 프랑스 문화 특강
 - 글로벌영업본부 워크숍
 - 국내영업본부 워크숍
 - 지진발생 행동요령
 - 동호회 활동 지원
- 22 두런두런 이야기방**
 - <파리대왕> 독서 후기





10



12



14



24



46



함께 보는 세상

24 꽃청춘 수학여행

비경 속 유유자적 뱃놀이
[베트남 하롱베이 크루즈]

28 마을숲을 걷다

초당 아래 원시림 비경
[강진 다산오솔길·백운동 원림]

32 성장달리

생각의 라이트를 켜라
[기획력]

34 화학 속 인생법칙

나눔과 공유 시너지 폭발
[공유결합]

36 취미탐구생활

[예술형] 취미 정보

38 캔버스 연구실

진공 펌프 & 조지프 라이트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



성장의 S-OIL

40 주요 경영활동

- 아람코 윤활기유 연합 공식 출범
- 국내 주유소 최초 스마트 무인편의점 개소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부금 전달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금 전달

44 단신

- CEO 표창 시상
- 본사 사옥 글판 교체

45 햇살나눔

-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 계전부봉사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동행 자전거 라이딩
- 사진동호회 담도폐쇄증 환자 가족사진 촬영
- 윤활생산부봉사단 청소년 동행 미용 나들이

49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집중과 정진

위기 해결의 동력

[열정] 부문 표창자
전정도 사우(장치2과)



온산공장 역사와 함께한 베테랑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회피하거나 돌파하는 경우다. 전정도 사우는 단연코 후자다. 설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냉철하게 판단해 열정적으로 수행한다.

전정도 사우는 1991년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뒤 지금까지 장치2과에서 용접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용접에는 아크용접과 산소용접, 파이프 용접, 특수용접, PVC용접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전 사우는 이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가진 베테랑이다.

“우리나라 정유공장은 대규모 설비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온산공장 역시 마찬가지죠. 설비가 다양한 만큼 재질도 여러 가지라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 그에 맞는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공장 특성상 주로 파이프 용접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 온산공장 곳곳에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처음엔 허허벌판에 가까웠던 이곳이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핵심 공장으로 거듭난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뜨거운 열정, 투철한 책임감으로 위기 해결

용접은 고도의 집중력과 완벽한 품질을 요하는 작업이다. 열과 압력을 다루는 일이라 무심코 넘긴 사소한 결함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정도 사우는 30년 가까이 재직하며 단 한 번의 안전·품질 문제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일상적인 정비작업은 물론 긴급 작업 상황에서도 늘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한다. 심지어 하루 휴가를 내고 건강 검진을 받던 중 신속한 용접 작업이 필요하다



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달려 나온 일도 있다. “3기 시설 일부 설비의 보강 문제가 발견돼 협력업체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접부로 유독한 연소가스가 거세게 누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안전화를 착용하고 석면포를 펼친 그 위에 올라서도 발바닥이 뜨거워 작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안전 장구인 에어 마스크도 적용할 수 없는 현장 상황 속에서 제가 고안한 에어 조끼를 갖추고 나서야 서둘러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용접하지 않으면 공장을 섣달해 해야 했다. 이에 따른 손실도 막대할 터였다. 하지만 휴가도 반납하고 달려온 전 사우는 신속·정확한 작업 덕분에 공장은 다시 막힘없이 돌아갈 수 있었다.

후배들을 위해 디딤돌 놓는 마음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도 전 사우는 투철한 책임감과 숙련된 기술로 위기를 돌파했다. 당시 원유선에서 해상계류시설(SPM)로 원유를 하역하던 중 문제를 발견했다. 강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긴 흉터였다. 당장 손상된 부분을 용접해야 했지만 바다 위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 잠전사고의 위험이 커서 협력업체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항무방재과에서 장치2과로 도움을 요청했고, 전정도 사우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상황을 파악한 후 잠수복을 입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손목에도 절연테이프를 감아 대비했어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원유는 우리회사의 ‘밥’과 마찬가지로인데 밥그릇에 흠이 생겼으니 회사 일원으로서 상황을 해결해야지요. 물론 아무리 잠수복을 입었다고 해도 배꼽까지 물이 차 오른 상황에서 몸을 7자로 굽힌 채 용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 자꾸 용접마스크가 돌아가서 턱받침을 입으로 물고 작업했어요. 당시 날씨가 안 좋아서 상황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작업하길 수차례 반복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결국 성공적으로 용접을 마쳤고 원유 수급상의 시급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 사위의 열정은 ‘2018 CEO 표창 핵심가치(Core Value 열정 부문) 수상자’란 기쁨으로 돌아왔다. 자랑스런 상을 받았으니 잠시나마 박수를 받아도 좋으려만 전정도 사위의 마음은 오롯이 후배들을 향해 있다.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들이 우리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열정이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 강조하는 전정도 사우는 안전이란 디딤돌로 우리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잇고 있다. 🌱

**열정이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주요 공적

- ▶ 안전하고 완벽한 긴급 보수작업 수행으로 공장 설비 신뢰도 강화
- ▶ 30년 가까이 다져온 정비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적극 전수
- ▶ 남다른 열정과 동료애로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에 일조

모두를 위한 전방위 가치창출

용도개발/기술지원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며 대단위로 조성된 서울 마곡산업단지는 국내 우수 기업들의 핵심역량 집결지이기도 하다. 이곳 에스-오일 기술개발센터(TS&D Center) 내에 우리의 미래 수익원을 연구, 발전시키는 용도개발/기술지원팀이 있다. 우수한 연구 인력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과 협력을 놓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협업으로 제품 성능과 경제성 두루 확보

용도개발/기술지원팀은 우리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축한 새로운 제품군을 통해 폴리머 시장 공략을 전후방으로 든든하게 지원하는 부서다. 우리 폴리프로필렌(이하 PP)을 앞세워 폴리머 제품 고객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해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주요 임무다. 아울러 고객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로 공장 운영의 폭을 확장하고 판매확대 제고의 가능성을 열어 궁극적으로 우리회사와 고객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이렇듯 용도개발/기술지원팀은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실현을 위해 생산과 영업의 긴밀한 협력(Collaboration)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고객 향한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 시장 진입

용도개발/기술지원팀 업무는 크게 기술지원과 제품개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팀원들은 총 세 그룹, 즉 사출-압출-유변공정 그룹으로 편성돼 있다. 사출 그룹은 PP를 원료로 자동차 범퍼나 식품용기, 플라스틱 가구 등과 같은 복잡한 형상의 재화를 만드는 고객 대상 기술지원과 제품개발을 맡는다. PP로 플라스틱 섬유, 밴드, 필름, 파이프 등 연속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고객은 압출 그룹이 담당한다. 유변공정 그룹은 다양하게 변하는 폴리머의 특성 연구에 기반해 고객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와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용도개발/기술지원팀의 현안은 새로운 제품 개발이다. 일부 용도에만 적용 가능한 제한적인 제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한편 기술지원으로 고객관계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안

PP는 대표적인 범용수지(일반적인 성형물품, 포장 재료, 생활용품, 잡화 등 광범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합성수지) 중 하나다. 성형 가공이 쉽고 가벼워 비용이나 환경면에서 강점이 두드러지는 특성상 일상에서부터 산업 각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사용 분야 별로 각기 다른 성능을 지니고 있어 투명도와 유연성의 변용으로 제품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곧 시장 점유율 제고와 수익성 향상과 직결된다. 이에 용도개발/기술지원팀은 철저한 경향 분석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신규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개발해 최종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제품 성능과 함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일도 중요하다. PP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첨가제와 안정제의 최적화로 제조원가 개선을 위한 연구는 필수다. 관계 부서의 단합된 시너지 덕에 우리회사는

정적인 시장 진입 성공을 뒷받침하고, 제품의 질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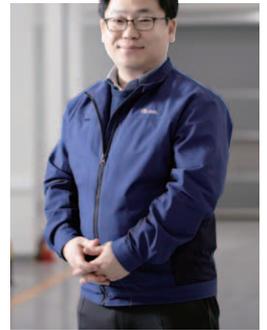
그 사이 팀은 괄목할 성과를 기록해왔다. 시운전을 통해 생산된 PP 제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기여한 일은 빼놓을 수 없다. 2018년부터 사전마케팅을 통해 우리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폴리머 제품군과 고객사를 발굴하면서 고객 대상의 제품테스트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고무적인 성과는 PP컴파운드 고객사의 신규아이템 개발에 기여해 해당 제품 생산에 우리 제품을 독점 사용하게 한 일이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분야에 머물던 고객사 범위를 가전부품 시장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향후 더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에스-오일 기술개발센터(TS&D Center) 건립에 맞춰 PP기술 라이선서사인 스미토모화학(Sumitomo Chemical)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제반 시설 구축에 헌신하면서 센터와 공장의 정상가동화에 힘썼다. 팀원들은 외부 교육과 센터의 자체 세미나, 공

원료(Upstream)에서부터 생산(Downstream)까지 수직계열화한 프로세스를 통해 뛰어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특히 타사에 비해 우수한 제품력을 확보하고 있다.

66
기술연구와
제품 개발을 둘러싼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을 향해 집중합니다

99

신영식 팀리더



장 엔지니어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해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과 정례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산학 공동연구, 학계 전문가 단체와 연계한 산학협력도 수행 중이다. 또한 국내외 컨퍼런스에 참가해 기술동향과 시장정보를 수집하면서 기술 뉴스레터를 발간해 역량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春風風人

춘
풍
인

나 그대 마음에 봄을 드리리



핵심가치 [나눔] 편

추위 녹이는 봄바람처럼, 한여름 단비처럼

새순이 돋고 봄기운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몸을 움츠리게 했던 칼날 같던 바람이 물러나고 개구리와 벌레들이 깨어나는 때다. 봄바람이 강과 산천에 따뜻한 기운을 나눠주면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고사가 춘풍풍인(春風風人)이다. 따뜻한 봄바람을 다른 이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양(梁)나라 재상이었던 맹간자(孟簡子)가 죄를 지어 제나라로 망명하게 됐다.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이 그를 직접 맞이하러 나갔으나, 일국의 재상이었던 자가 초췌한 물골에 허름한 옷을 걸친 채 고작 세 명의 일행을 데리고 오자 관중이 의아해서 물었다.

“재상을 지낼 때 당신의 식객(食客)이 고작 세 사람뿐이었던가요?” “삼천 명이 넘었지요.” “다 떠났군요. 세 사람은 어찌하여 당신을 따라온 것인지요?”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를 치러 죽을 때 제가 장례를 치러주고, 한 사람은 어미가 죽었을 때 제가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줬지요. 또 한 사람은 그의 형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도록 힘써 주었습니다.”

맹간자 일행을 잘 안내한 뒤 돌아오는 길에 관중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맹간자를 보니 내 앞날을 떠올리게 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맹간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春風風人, 夏雨雨人(나는 과연 봄바람을 남에게 불어넣어 준 적이 있었던가? 여름비처럼 남을 적셔 준 적이 있었던가?)” 따뜻한 봄바람이 새 생명을 불어넣고 여름비가 온갖 농작물에 은택을 베푸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는지 관중은 되돌아본 것이다.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등
 저서가 있다.

나눔의 가치는 마음의 크기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다. 나홀로 문화도 새로운 세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혼자 독차지해 얻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맹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맹자가 양혜왕에게 물었다.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남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양혜왕이 대답했다. “홀로 즐기는 것은 남과 더불어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소수와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즐겁습니까?” “소수와 즐기는 것은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스스로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도 행복하도록 나눠야 하며, 나부터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 그럴 때 그 즐거움은 전염되듯 온 세상이 즐거워질 것이다.

중국 오나라의 동봉(董奉)의 삶도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새기게 한다.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의술이 뛰어나 큰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동봉은 가난한 환자가 오면 돈을 받지 않았다.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 금방 망한다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동봉은 “의원은 환자를 살리는 게 제일이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병이 나은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문 앞에 돈을 놓아두고 가거나 제자들에게 전해 주곤 했다. 할 수 없이 동봉은 대안을 마련했다. “오늘부터 병이 심한 환자는 살구나무 다섯 그루, 병이 가벼운 환자는 살구나무 한 그루씩 내 뒤편에 심도록 하시오. 그것이 치료비요.” 환자들은 기뻐하며 치료비 대신 살구나무를 심었다. 몇 년 뒤 동봉의 집 뒤편에는 커다란 살구나무 숲이 생겼다. 동봉은 살구나무의 열매를 따서 곡식으로 바꾼 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한 한의사 협회 마크에 살구꽃이 그려져 있는 것도 동봉의 이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꼭 많이 갖고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십 억을 갖고 있어도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돈 몇 천 원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눔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의 처지에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일 것이다. 🌱



핵심가치 [나눔]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춘풍풍인 따뜻한 봄바람을
 다른 이에게 불어넣다

春風風人
 春風風人
 春風風人
 春風風人
 春風風人
 春風風人



오은아 대표
남편 황대현 씨(좌)
임재학 주유원(우)

기름도 마음도 가득!

충전합니다

대현주유소

“어서오세요!” 주유소로 들어서는 차량을 향해 오은아 대표가 힘차게 손을 흔든다. 힘이 넘치는 마중에 고객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입구에서부터 반기는 쾌활한 인사 하나로도 고객의 기분을 산뜻하게 바꿔주는 에너지 충전소, 대현주유소다.



대현 주유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17-1
☎ 043-241-5566



대현주유소 성공 전략 3

1 웃음 잃지 않는 긍정 마인드

대현주유소를 성장하게 한 원동력은 오은아 대표 부부의 긍정 마인드다. '포기하지 않으면 잘 된다',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린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2 사계절 정 담은 선물

작은 손익을 따지기보다 베푸는 마음으로 정을 나눈다. 철마다 넉넉히 준비하는 각종 간식은 대현주유소의 세심한 성공 전략 중 하나다. 끼니를 챙기기 쉽지 않은 화물차 상황을 배려한 점이 단골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

3 한결같은 서비스 정신

친절한 서비스, 넉넉한 간식도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한결같은 실행력만이 신규고객을 단골고객으로, 단골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배도 든든 정도 듬뿍

아담한 체구에서 나오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고객을 맞이한 오은아 대표는 크게 수신호를 보내며 능숙하게 차량을 주유기로 안내한다. 뒤이어 들어오는 화물차는 남편 황대현 씨가 맡았다. 다소 빠듯한 주유 공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두 대를 너끈히 들인 두 부부의 호흡이 하루 이틀 솜씨가 아닌 듯하다. 주유소가 이미 꽉 찬 가운데 입구 앞에서 또 다른 화물차가 대기하기 시작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고객님의 금방 끝납니다.” 화물차가 줄지어 주유를 기다리는 진풍경에 오은아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대현주유소의 운영 철학은 ‘모든 고객을 어제 본 사람처럼’입니다. 처음 방문한 고객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정겹게 맞아주는 친근함이 첫 방문에서 다음 방문으로, 또 계속되는 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오 대표는 특유의 눈썹미로 고객 성향과 직군을 빠르게 파악한다. 회장님, 사장님, 고객님의, 교수님 등 부르는 호칭부터 응대 방식까지 철저히 고객에게 맞춘다. 또한 대현주유소는 넉넉한 인심으로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봄·여름에는 감자와 옥수수를 찌고, 가을·겨울이면 군고구마와 구운 달걀, 어묵을 고객 간식으로 내놓는다.

“작은 손익에 연연하기보다 더 멀리 큰 미래를 내다본다”는 오은아 대표의 간식 마케팅은 단골고객을 유지하는 데 한몫했다. 특히 끼니를 놓치는 일이 잦은 화물차 고객을 사로잡았다. 화물차 기사 연재관 씨는 7년째 이곳을 이용해 온 충성고객이다.

“오 대표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맛 좋은 간식에 반해 계속 오고 있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오랜 운전엔 지치다가도 대현주유소에만 오면 기운을 얻어 갑니다.”

친절한 미소 뒤로 흘린 구슬땀

대현주유소는 2012년 ‘에쓰오일 챔피언스 클럽’ 친절부문 특별상의 영예를 입은 우수업소다. 언제나 고객 앞에서 씩씩하게 미소 짓는 오은아 대표이지만, 챔피언의 영광을 얻고 또 지금껏 유지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하고 지난했다. 소박한 규모, 대로에서 입구까지 평탄치 않은 굽은 길 등 설립 초반부터 운영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다. 게다가 대현주유소가 들어선 뒤로 인근에 타 주유소가 아홉 군데나 들어서고, 서창IC를 비롯해 도로가 새로 개통되는 등 악재가 연거푸 터졌다.

“한때는 매출이 반 토막 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어요.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이 열린다’고 남편과 다짐하면서 이 악물고 버텼죠.”

오은아 대표는 우리회사에 적극 도움을 요청했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주유소를 찾아가 마케팅 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직접 살피고, YES팀으로부터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게 된 것도 우수업소 현장 견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였어요. 다만, 좋은 점은 배우되 그대로 베끼지 않고 우리 주유소에 맞는 방식으로 보완, 발전시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헤드 마이크를 끼고 고객을 유치하거나 주유량과 주유비를 정확히 고지하는 안내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오 대표의 노력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지난 9년의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잘 이겨내 온 지금, 대현주유소는 단단하게 성장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해도 주어진 자본이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냈다. 여전히 배우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다는 오은아 대표는 머지않은 미래에 대현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더 나은 대현주유소가 될 것을 약속하며 그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



친구에서
연인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주성민 사우(PP포장/출하과) 가족

누구나 한 번쯤 첫눈에 반한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는 순정만화 같은 로맨스를 꿈꾼다.

그 로망을 현실로 이룬 사람이 있다.

지난 2월, 열여덟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까지
끌인한 주성민 사우다.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첫사랑이자 끝사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주성민 사우와 아내 박수빈 씨는 2017년 2월 16일 연인으로 발전했고,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2019년 2월 16일 마침내 부부가 됐다.

“어려서부터 ‘연애를 시작한 날짜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아니면 2월 16일에 주말인 해를 십 년 넘게 기다려야 하더군요. 제 로망을 이뤄주기 위해 남편이 애써준 거죠.”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때 이른 나이라며 둘을 말렸지만,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스물여섯이던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평생의 짝을 일찍 만난 건 오히려 행운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툰 이십 대, 삼십 대 그리고 노년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청순해 보이는 걸모습과 달리 털털한 성격을 지닌 아내 박수빈 씨에게 첫눈에 반한 주성민 사우는 졸업 전까지 세 차례나 고백했지만, 모두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그 뒤 몇 해 동안 친구로 지낸 두 사람은 스물넷이 돼서야 비로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당시 여러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아내가 늘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주성민 사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6년간 이어온 짝사랑이 이뤄졌으니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마음을 받아준 수빈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던 아내는 “그때 남편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고이 간직할 결혼선물

하얀 니트에 하얀 바지와 치마 등 마치 웨딩촬영이 연상되는 의상을 갈아입고 나온 두 사람 덕에 스튜디오 안이 조명을 켜진 것 마냥 환해진다.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서자 쑥스러움도 잠시 능숙하게 포즈를 취한다.

“얼마 전 웨딩촬영을 해서 그런지 사진촬영 하 나는 자신 있어요.”

주성민 사우의 너스레에 스튜디오에 웃음소리가 번진다. 사진작가 주문 없이도 척척 포즈를 취하며 환한 웃음을 보이던 두 사람은 “활짝 웃

어야 촬영이 빨리 끝난다는 걸 안다”며 여유까지 선보인다. 아내 박수빈 씨는 “남편 덕에 새로운 추억을 선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다른 결혼선물보다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전한다.

완벽한 호흡으로 빠르게 사진촬영을 마친 두 사람은 이어진 피규어 촬영에 앞서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보고, 서로 어깨에 기대어 보기도 하며 어떤 포즈를 취할지 의견을 나눈다. 한참을 고민하던니 둘은 서로 한 팔씩 높이 들어 커다란 하트를 만들어 보인다. 주성민 사우는 “진부하지만 저희 둘의 마음을 대변한 포즈”라며 머리를 긁적인다.

제작 특성상 개별촬영을 해야 하기에 주성민 사우가 먼저 3D 프린팅 전용장비 앞에 나선다. 반짝이는 불빛에 눈을 깜빡이는 남편의 모습이 재미있는지 아내는 휴대폰에 남편의 모습을 담느라 바쁘다. 이어서 아내 촬영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반대로 주성민 사우가 아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연신 입꼬리를 들썩인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사랑해

주성민 사우
아내 박수빈 씨



평생 함께하겠다는 다짐

주성민 사우는 첫사랑과 결혼해서 좋은 점으로 “정작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서로의 사소한 모습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이라며 “열여덟 풋풋했던 모습과 이십 대 중반의 성숙한 모습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 좋다”고 전한다.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아내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고, 옆에 있을 때가 가장 나다워지는 사람이라 행복하다”고 덧붙인다. “이토록 외로운 세상에 오롯한 내 편을 만났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이 든든해요. 그건 첫 만남의 설렘보다 훨씬 더 강한 마음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베스트 프렌드’라 칭한다. 사랑이란 감정을 기본으로 하고 ‘힘난한 삶을 함께 헤쳐 나가는 동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는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일까지 모두 공유하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에서, 연인 그리고 부부로 발전한 두 사람은 일방적인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 올해 입사 3년차인 주성민 사우는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믿고 지지해주는 아내 덕에 더욱 용기 내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한다. 서로를 향한 두터운 믿음과 배려 때문일까. 새내기 부부는 둘 앞에 펼쳐질 미래가 결코 두렵지 않다. 🌈

마음 키우는

근육 단련



보디빌딩

글. 이근현(자재관리팀)
사진. 디자인소호

외적 변화 내적 성장

보디빌딩에 입문한 것은 10여 년 전이다. 불현듯 욕심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다 균형 있는 신체를 목표로 운동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보디빌딩은 무거운 기구를 써서 골격을 둘러싼 근육을 단련해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운동이다. 결심에 부합하는 종목이었다. 곧바로 동네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다. 관장님 일을 도와드리며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 지금껏 보디빌딩을 이어오고 있다.

보디빌딩은 얼핏 '근육을 거대하게 키우는 운동' 정도로 생각될 만하다. 그러나 직접 느낀 효과는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선다. 근력이 증가하면 전신에 혈류 공급이 늘면서 활기가 차오른다. 신진대사가 활발하니 몸 상태가 가뿐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보다 놀라운 경험은 정신적인 변화다. 보디빌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스스로에 대해 '소심하다'고 여겼다. 꾸준히 몸을 단련해온 지금은 이전과 다른 자존감을 느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정직한 운동으로 정직하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할 결과다. 여기에 마음의 안정은 덤이다. 중력에 저항하며 바벨, 덤벨 등과 같은 기구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만큼은 잡다한 모든 생각이 사라진다. 심적으로 무척 편안한 상태다.

보디빌딩 정보상자



APP

남성을 위한 집에서 하는 운동

칼아두면 무조건 도움 된다는 평이 이어지는 보디빌딩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디빌딩을 위한 21 레벨의 운동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운동 진행 상태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가이드가 함께 제공돼 유용하다.

MEDIA

개인질닷컴 www.ggjil.com

보디빌딩·피트니스 전문 미디어다. 관련 뉴스와 영상, 대회·일정 정보까지 보디빌딩에 관한 정보라면 총망라한 온라인 매체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도 인기다.



인내와 도전의 근력 키우기

보디빌딩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중량 운동과 영양 조절, 그리고 휴식이다. 운동으로 근육에 상처를 입힌 뒤 일정한 휴지기로 회복하고, 과하거나 부족한 체성분을 고려해 식단을 지킨다. 이 모든 과정에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나약한 의지에 떠밀려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이 운동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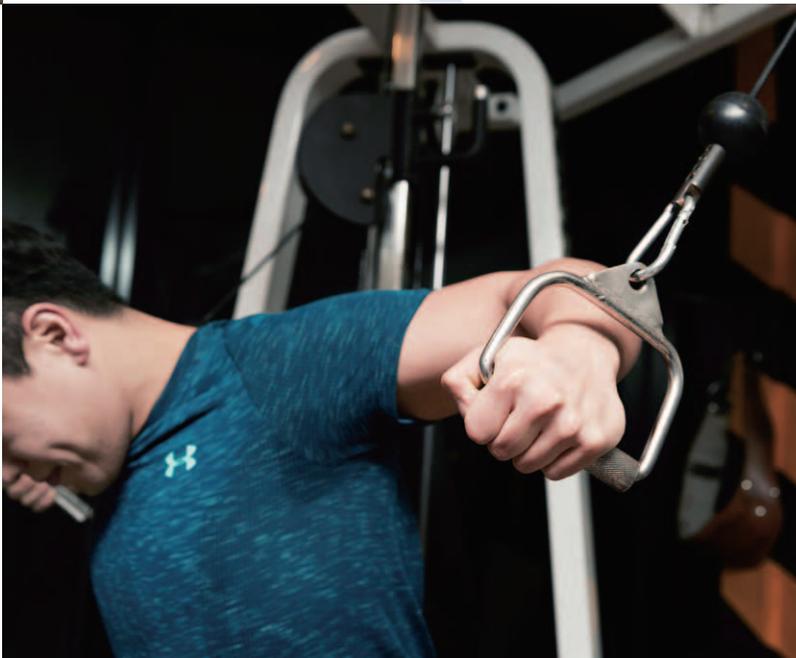
보디빌딩 대회에도 여러 차례 참가했다. 첫 대회는 입문한 지 1년 만에 치렀다. 무작정 참가 신청을 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 전문 보디빌더가 아니니 운동에만 신경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내 뜻과 내 몸만을 믿고 노력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최근 개인 삶의 질이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보디빌딩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다. 대세에 따라 많은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다. 다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의지가 부족할 경우 환경부터 조정해볼 것을 권한다.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비용이 수반되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중량의 운동기구들을 임의로 다루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바른 자세로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현재 운동 주기는 주 5회를 기본으로 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시점에는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일주일 내내 관리한다.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본 거울 속 모습이 당당하게 바뀌어 있으리라는 확신의 힘이다. 

꾸준히
몸을 단련해온 지금
이전과 다른 자존감을 느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BODYBUILDING

배움 있는 예술 드라마

프랑스 문화 특강

글. 이계영(CEO실)

한층 친숙해진 프랑스 문화

‘프랑스 예술가들의 삶과 뮤즈’를 주제로 한 프랑스 문화 특강이 2월 22일 금요일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칼럼니스트이자, 인사동 갤러리를 운영하는 오현금 대표의 강연을 통해 그림보다 예술 같은 삶을 살아낸 프랑스 작가들의 세기의 작품들을 해석하고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뮤즈는 그리스 신화에서 서사시, 음악을 관장하는 아폴론의 아홉 여신들이다. 강연자가 ‘당신의 뮤즈는 무엇인가요?’라는 화두를 던지며 특강이 시작됐다. 강연은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 마리랑생’, ‘조각가 로댕의 뮤즈이자 동업자, 클로델’, ‘피카소의 작품을 발전시킨 아홉 여인들’에 대한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됐다. 프랑스 시인, 조각가, 화가들의 작품과 뮤즈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흥미로울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작가와 명작의 숨은 이야기

특강 첫 번째 파트 내용인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르고>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이하 기욤)와 그의 뮤즈 마리 로랑생이야기다. 피카소 소개로 만나 이내 사랑에 빠진 기욤과 마리 로랑생은 서로의 예술성을 인정하며 시를 써주며 아픔을 공유한다. 그러던 중 기욤이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도난사건 용의자로 몰리며 큰 곤혹을 치른다. 억울한 마음에 로랑생에게 위로를 받길 원했지만 마리 로랑생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그때 그를 위로해준 친구는 사갈이었다. 사갈의 집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외롭게 집에 돌아가던 길에 미라보 다리에서 마리 로랑생에게 남긴 시가 바로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르고>다. 마리 로랑생과 헤어지고 그리워하며 쓴 이 시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기욤은 프랑스 여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두 번째 파트의 강연도 인상 깊었다. 24세 나이차를 극복한 19세 클로델과 43세 로댕의 이야기다. 클로델이 16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별한 뒤 십여 년이 지나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보고 지옥의 문을 만들게 됐으며 지옥의 문 다섯 번째 작품은 삼성이 구매해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정보 등을 새삼 알게 됐다. 시인으로 유명한 릴케가 로댕의 비서로 활동한 것도 흥미로웠다.

세 번째 파트는 피카소의 여인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식적으로 7명의 연인이 있었고 두 차례 결혼한 피카소는 늘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고 여인이 바뀔 때마다 화풍을 달리했다. 피카소가 죽은 뒤 한 여인은 그를 따라가 돌봐야 한다며 자살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무덤 앞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여인 역시 이별로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뒤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20명의 참석자들은 특강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연자가 작품 설명 외에도 예술가들의 삶을 담아낸 영화와 소설들을 추천해 유용했다. 다음 2차 프랑스 문화 특강에서는 <달과 6펜스> 소설을 탄생시킨 고갱과 자신의 귀를 자르며 이글거리는 태양과 함께 생을 불태운 고희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변화의 파고 속 예측과 전략

글로벌영업본부 워크숍

글. 박수지(해외운영팀)

2월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글로벌영업본부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격 화상 장비로 연결한 일부 해외지사를 포함해 본부 산하의 정유해외영업·유회부분 전 임직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구성된 한 명 한 명의 실행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로 소통하며 업무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충전했다.

워크숍은 지난해 주요 실적을 되짚고 올해 실행 계획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각 부문 하위 팀이 차례로 발표에 나선 가운데, 업무별 구체적인 계획들과 이에 따른 달성 목표를 자세히 소개했다. 발표 세션이 모두 끝난 뒤에는 각 부문장 강평으로 실행 계획이 목표하는 바를 정교하게 재확인하며 워크숍 실효를 높였다.

올해 정유해외영업부문은 잠재적 사업 확대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내외 협력을 강화해 주요 시장과 고객사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우디아람코와 협력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회사가 견지하는 최고의 운영 효율성을 기반 삼아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를 비롯한 대외 여건과 우리의 생산·품질 개선 추이에 발맞춰 적기 대응하면서 시장 수요와 판매지형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유회영업부문은 올해 사우디아람코와 한층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다각도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품질 강화를 위한 조직 내 협력, 대형 수요처 발굴과 주요 시장 고객기반 확대, 신시장 개척을 도모하는 고객관계강화와 마케팅 활동, 운영 업무 효율화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판매기반 구축 등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공역량 키우는 강팀의 조건

국내영업본부 워크숍

글: 이동인(영업전략팀)

국내영업본부 워크숍이 2월 22~23일 써닝리더십센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개최됐다. 국내영업본부 임직원은 워크숍을 통해 전년도 성과를 돌아보며 서로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나누고 새해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유해 성과 창출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다. 올해 워크숍에는 본사 임원과 팀리더, 파트리더를 포함해 전국 지역본부장과 지사장, 저유소장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에 앞서 2018년 연간 최우수지사4분기 우수지사 시상식이 열렸다. 연간 최우수지사로 인천·강남·용인지사가, 전년도 4분기 우수지사로 울산·남양주·광주·진주 수원지사가 선정돼 수상과 함께 축하박수를 받았다.

본격적인 세션은 지역본부와 부문 단위의 중점 추진사항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서 마련된 특강 세션에는 최철구 대표(HSG휴먼솔루션그룹)의 '에스-오일 리더를 위한 강팀의 조건' 초청강연이 진행돼 팀워크 상생을 이끄는 리더십에 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2018년 국내영업본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 점검에 이어 2019년 주요 시장환경 변화와 핵심 목표, 주요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발표 내용에 집중하면서 국내영업본부의 올해 목표를 한층 깊이 있게 이해했다.

국내영업본부 워크숍은 우리의 비전 아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연례 행사다. 올해 워크숍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재난대응 안전 점검

지진발생 행동요령

글. 김경현(총무팀 비상계획파트)

우리회사는 사업장별로 다각도의 비상 훈련과 관련 교육을 실시해 화재나 지진, 공습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상청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15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지진 발생추이는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최근 3년 사이에 최다 횟수(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순)를 기록했다. 평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만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임직원 가족 모두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숙지할 것을 권한다.

1

실내에 있을 때

-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하고, 불가할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부터 보호한다.
- 대피를 위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를 차단한다.
-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이미 타고 있는 상태라면 신속히 내린다.
- 초기 진동이 멈춘 뒤 공터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2

집밖에 있을 때

- 무너질 위험이 큰 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낙하물 위험이 있는 번화가나 빌딩 근처에서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경찰, 소방 등 방재기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동요하지 않는다.

3

백화점이나 지하상가에 있을 때

- 침착함을 유지하고 종업원이나 경비원 등 안내자 지시에 따른다.
-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춰 대피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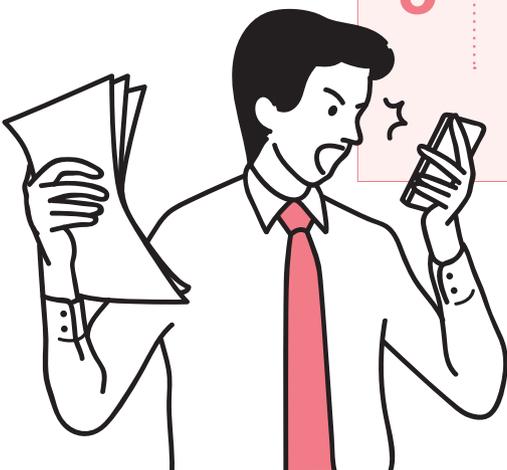
운전 중

-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듯 핸들이 불안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길에 차를 정차시킨다.
- 라디오를 켜고 상황을 파악하며 주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산이나 바다에서

-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을 고려해 대피한다.
- 해일특보가 발령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TV나 라디오 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활력 업! 효율 쑥~

일과 삶의 균형을 돕는 제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시행 중인 우리회사가 건전한 취미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사 동호회는 2019년 2월 기준 총 38개 단체이며, 1천312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동호회는 동료, 선·후배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조직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학문, 예술, 기술 등 무궁무진한 분야 중 아직 동호회 결성이 이뤄지지 못한 방면이 많아 지원 기준과 절차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만하다. 🌟

동호회 활동 지원

글: 이미수(복리후생팀)



등록방법

- 1 회원수 10명 이상(지방소재 단위 사업장은 1 단체에 한해 지원)
- 2 회칙 구비 및 조직구성 뒤 복리후생팀에 제출 → 심사 후 등록

* 1인 최대 3개 동호회까지 가입 가능

지원기준

- 행사비(참가비, 입장료 등)
2만 원 내/인/회, 실비 지원
- 식음료비
1~2만 원/인/회 실비 지원
- 특별경비
사전검토 후 지원

사업장	동호회	총무	인원(명)
본사	스키/보드	김관희(시설투자기획팀)	37
	족구회	신종현(해외마케팅전략팀)	13
	탁구회	고유석(LPG팀)	18
	야구회	김정현(법무팀)	20
	풋살회	장성제(신용관리팀)	30
	농구동호회	성정현(법인영업팀)	20
	자전거회	김형수(브랜드마케팅팀)	16
	마라톤회	박세준(저유관리팀)	10
	걷기동호회	조성아(LPG팀)	13
	스쿠버다이빙동호회	이양원(정유Heavy제품팀)	11
	테니스동호회	이석균(시설투자기획팀)	11
	사진회	김명현(CSR/운영지원팀)	15
	색소폰회	박건구(총무팀 비상계획파트)	12
	그리스어&라틴어연구회	이화영(CEO실)	10
	꽃꽂이동호회	조설화(수급운영팀)	30
	서양문화의 이해 동호회	강노을(경영기획팀)	13
	온산 공장	축구동호회	박정훈(MTBE생산과)
테니스회		오해원(육상출하과)	149
산악회		피준호(탈황1과)	131
영상회		조일총(품질관리팀)	101
마라톤동호회		오두식(전기과)	92
족구동호회		정원진(전기과)	91
수영동호회		조영식(계기3과)	80
탁구동호회		백경민(전기과)	67
스키동호회		김건섭(아로마틱생산2과)	60
야구동호회		김용수(기계1과)	64
배드민턴동호회		윤성민(FCC1과)	64
서예회		이병학(아로마틱생산1과)	60
낚시회		박평수(ARO생산공장)	50
스쿠버다이빙동호회		안재종(설비관리계획팀)	35
FC 구도일(풋살)		이민지(이익개선팀)	31
농구동호회	김영록(탈황2과)	29	
자동차정비동호회	정대성(MHC과)	15	
지방 사업장	중부지역본부 산악회	허지석(인천지사)	90
	서부지역본부 산악회	이순영(서부영업지원팀)	90
	수원 걷기동호회	이윤희(수원지사)	13
	대전 볼링&탁구 동호회	신기섭(대전지사)	18
	제주저유소 오름동호회	김종민(제주저유소)	7



인간 본성 고찰



<파리대왕> 독서 후기

글. 안중홍(정유1과)



파리대왕

세계문학전집 19
윌리엄 골딩 지음, 유종호 옮김
민음사, 2000년 10월 16일 출간

미국대학위원회 SAT 추천도서
<아마존 선정 일생에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선정
노벨문학상 수상

이념과 통제 없는 아이들의 세상

명작은 시간이 지나도 풍성한 감상을 선사한다. 얼마 전 다시 꺼내든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도 그러하다. 이 책은 외딴섬에 고립된 소년들이 원시적인 야만 상태로 퇴행해 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리며 인간의 야만성을 고발하는 소설이다. 처음에는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진다.

이 책이 출판된 1954년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핵폭탄의 엄청난 파괴력을 알게 된 인류가 과연 영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는 냉전 시대다. 그러한 회의적 분위기 속에서 작가 윌리엄 골딩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 외부의 연락이 끊긴 무인도를 무대로 설정했다. 이야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소년들이 조난당한 것에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각자 역할을 정해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이내 외부와 연락하려 봉화를 사





수하는 램프 무리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멧돼지 사냥에 집중하는 잭 무리로 나뉘게 된다. 규율을 지키며 소리를 불어 회합을 여는 램프 일행은 무인도에서 문명을 회복하려 하는 반면, 사냥을 좋아하고 춤을 추며 얼굴에 칠을 하는 잭 무리는 '오랑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점차 야만적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잭이 사냥을 나가면서 말았던 봉화가 꺼진 사이 배가 지나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무리는 분열한다. 점차 많은 인원이 잭에게 가면서 램프 무리는 봉화를 피우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아이들은 이념과 통제가 없는 곳에 내던져졌지만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 하고, 지배하려 하며 약점을 가진 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그렇게 타락해 간 것이다. 결국 무력을 앞세운 잭 무리가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던 중 대피하던 램프 무리가 피운 봉화를 보고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구출된다. 다시 문명과 접하게 된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변해버린 인간본성의 추악함과 친구의 죽음에 소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합리적 이성의 민낯

<파리대왕>을 읽으면서 왜 주인공이 아이들이며, 왜 어른이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톰 소여의 모험> 등 어린이가 주인공인 소설을 보면 아이와 대비되는 어른의 모습과 어른이 세운 구조와 사회 계급 편견 등을 비판하는 작품이 많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책은 어른이 아닌 인간 자체를 비판한다. 추측하건대 작가는 아이를 인간의 최초 모습으로 보고 선과 악의 구분과 옳고 그름의 구분 그리고 세상의 규칙에 대한 무지함 등을 갖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려 한 듯하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악하고 어리석다. 마음은 스스로 천국도 지옥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통제하는 우리의 합리적 이성은 얼마나 튼튼하며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누려온 문명이 허망할 정도로 깨지기 쉽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보여주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소설임에는 틀림없다. 🌻



비경 속

유유자적 뱃놀이

베트남
하롱베이 크루즈

글·사진. 이주영(여행작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사방에
여의주를 내뿜었는데, 이것이 바다에 떨어져 기암으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베트남 하롱베이다.
신비한 전설만큼 감탄을 자아내는 하롱베이의 비경은
'크루즈'라는 여정을 통해 더욱 특별해진다.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4시간 50분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화폐 VND 동 (1천 원=약 2만618동)
교통수단 택시·그랩(Grab)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베트남 공식 사이트 vietnam.travel/home
- ▶ 현지 교민과 여행자의 정보통 cafe.naver.com/vietnamsketch
- ▶ 비엣젯에어 www.vietjetair.com

하롱베이 크루즈

3박 4일

추천 일정



DAY1

비행기 출발 → 호텔 체크인 →
 여행사의 크루즈 예약 혹은 예약 확인 →
 하노이 시내 관광 → 호텔 1박

DAY2

하노이 출발(숙소 픽업) →
 훈가이 선착장(크루즈 승선) → 기암 감상 →
 카약액티비티 → 석식 제공 → 선상 1박

DAY3

하롱베이 일출 감상 → 태극권 등 아침 액티비티
 → 조식 → 항공숏 동굴 →
 선상 쿵킹클래스 및 점심 → 갯바섬으로 이동 →
 해수욕으로 바다 즐기기 → 석식 → 호텔 1박

DAY4

호텔 석식 → 호텔 체크아웃 → 크루즈 승선 →
 훈가이 선착장 → 여행사 차량 탑승 →
 하노이 숙소 도착 → 석식 → 공항으로 이동



1월 1박3일 홍콩 딤섬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관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볼리비아 바리스타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추천 Point

기암을 배경으로 배 위에서 보내는 꿈같은 하룻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기암이 3천여 개 섬으로 바다를 점점이 수놓은 하롱베이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내는 풍경만으로도 베트남 여행의 화룡점정이다. 대한항공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비경 중에 비경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탄성을 자아내는 청량한 물 빛이 일품이다. 하노이에서 편도로 4시간 걸리는 이동 시간은 도로 상태가 좋아 체력적인 부담도 덜하다.

활동 많은 아이도, 거동이 부담되는 연로한 부모님도 배 위에서는 만사 잊고 풍경에 빠져든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바닷바람 속에서 일상의 피로를 실어 보내며 편안하게 쉬다올 수 있다는 점이 하롱베이 크루즈를 입을 모아 추천하는 이유다. 특히 하롱베이의 노을 풍경은 고요한 듯 황홀하고 무심한 듯 풍요로워 크루즈라는 거창한 여정이 이 채로운 설렘으로 채워진다. 요컨대 하롱베이 크루즈는 휴식과 낭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 1 태고의 기암절벽을 만나볼 수 있는 하롱베이
- 2 국민 영웅 호찌민의 묘와 베트남 역사유적지를 관람하기 좋은 하노이
- 3 크루즈 여행의 흥을 돋우는 카약킹 체험
- 4,5 깊고 이채로운 향신료 맛에 매료되는 베트남 전통음식



4



5

관광 Point

하롱베이 크루즈의 출발과 도착, 하노이

하롱베이 크루즈 일정 전후로 하노이 관광도 빠뜨리지 말자. 문묘, 국민 영웅 호찌민의 영묘, 호안끼엠 호숫가 산책, 하노이대성당 그리고 골목골목 옛 정취가 남아 있는 하노이 36거리 등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오랜 역사만큼 볼거리가 넘쳐난다. 에그커피, 코코넛아이스커피를 훌쩍이며 하노이 구시가를 따라 하릴없이 거닐기만 해도 하루가 짧다. 오토바이 물결과 함께 우리의 근면함과 닮은 베트남의 활기를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다.

꼼꼼하게 선택하는 세부 일정, 깃바섬

하롱베이 크루즈를 예약할 때는 일정과 가격을 비교하자. 현지 업체가 거품 뺀 가격을 제공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일단 두세 업체 이상을 비교해 보는 게 좋다. 하롱베이 크루즈는 보통 1박2일과 2박3일 코스로 구분한다. 소소한 야외활동과 함께 1박2일 내내 바다의 비경과 함께하다보면, 알차게 여행한 기분이 든다.

단, 2박3일 코스는 1박2일 코스에 비해 별로 색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같은 풍경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숙소를 깃바섬으로 지정해 2박3일 코스를 완성하면 좋다. 1박은 선상에서, 다음 1박은 깃바섬에서 머물기 때문에 무료하지 않고, 실속과 재미를 다채롭게 누릴 수 있다.

체험 Point

동굴 캠프·카약킹·대나무보트 3박자

199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롱베이는 유구하게 지켜야 할 자연 유산이자 베트남의 소중한 문화 자원이다. 기이한 섬이 숨겨놓은 동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발견된다. 그중 항송숯동굴은 여행자가 손쉽게 탐방할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조성하고 조명등을 달아 거대한 동물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는 데 무리가 없다. 동굴 내부의 높이는 약 30m이고 탐방로로 조성된 거리만 500m에 이르며 억겁의 시간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석주에 또 한번 입을 벌여진다. 종유석과 석순의 다양한 형태가 조명등을 따라 형형색색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롱베이 투어는 동굴 탐방과 함께 카약킹을 포함한다. 즉 바라만 보던 바다를 보다 가까이에서 만끽하며 말 그대로 풍경 속에 빠져드는 활동이다.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 베트남가이드의 지시를 따라 2인 1조로 카약킹을 하거나 베트남 전통의 대나무보트에 오르는 야외 활동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제공받은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것은 상식이며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

하롱베이 크루즈 예약 노하우

같은 크루즈 상품이라도 예약 방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예약 노하우를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① 현지 예약 vs 인터넷 예약

눈 여겨 둔 업체를 꼭 이용하고 싶거나 지정된 날짜와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인터넷 예약을 추천한다. 이때 여행상품에서 식사와 왕복 교통편, 카약대여료 등 포함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다. 일정이 조금 여유롭다면 하노이 현지에서 다음날 참여할 크루즈 투어를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하고 현지 여행사에서 흥정을 한다. 마찬가지로 포함 내역을 체크해야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② 숙박 예약사이트 vs 여행사

하롱베이 크루즈 가격이 선박 객실 수준에 비례하는 만큼 크루즈 예약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포함 내역에 하노이~하롱베이 혼가이 선착장을 오가는 왕복 교통편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차량을 대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여행사에서는 상품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담겨 있어 숙박 예약사이트와 비교하며 살펴보는 게 좋다. 제시된 가격은 보통 1인 참여 비용이며 가족 수만큼 가격이 배가 된다. 가족 단위로 참여할 경우 3인 가족룸 등 옵션도 있다.

③ 투어상품 비용

하롱베이 크루즈 일정은 거의 모든 업체가 유사하다. 저가호텔부터 최고급호텔까지 등급을 나누듯 크루즈와 객실을 차등해 하롱베이 크루즈 가격이 결정된다.
*2박3일 1인 기준 약 85~28달러(약 10만 원~31만 원)

추천 크루즈

로사 크루즈 www.rosacruise.com
알리사 크루즈 www.alisacruise.com



포함 내역

하노이~하롱베이 왕복 차편, 크루즈 선박 투숙, 영어구사 가능한 가이드, 동굴 입장료, 카약 혹은 대나무 보트 대여료(주유·음료 불포함)





초당아래 원시림 비경

세월 걷는 오솔길

강진 다산오솔길 & 백운동 원림

글·사진. 전부순

남도답사 1번지인 전남 강진은 서울과 1천리나 떨어진 외진 고을이었다. 앞에는 강진만이, 뒤로는 월출산이 막고 있어 육지 속의 섬 같은 형세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유배형을 살던 곳이다. 그래서일까. 명승지도 많다. 특히 강진만을 바라보며 우뚝 솟은 만덕산은 천년고찰 백련사를 품고 있다.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잇는 오솔길은 정약옹과 혜장이 돈독한 우의를 다진 길이다. 사색과 명상에 안성맞춤인 이곳은 단연코 한번 방문으로 그칠 수 없다.



TRAVEL INFORMATION

주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수련원길 33
코스 다산수련원~두층나무 숲길~다산초당~
백련사 *총 2.5km(30~40분 소요)
문의 061-430-3911
홈페이지 www.gangjin.go.kr/culture

다산과 혜장의 흔적 따라 강진 다산오솔길

다산수련원에서 길을 잡는다. 주변은 벌써 봄
맞이 단장으로 어수선하다. 다산초당을 향하는
작은 둔지 옆으로 길게 늘어선 두층나무숲길이
인상적이다. 여기서 오른쪽 작은 언덕 하나 넘
으면 만덕산 등산로와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데,
경사진 땅 위로 드러난 나무뿌리들은 벌거
벗은 한줌 땅을 묘하게 움켜쥐고 있다. 시인 정
호승은 이를 '뿌리의 길'이라 명명했다.
1957년 다산유적보존회가 초가를 기와로 복원
한 다산초당(茶山草堂)에 닿았다. 주막집과 보
은산방, 이학래 집을 전전하던 다산은 이곳에서
일표이서(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와
함께 정치·경제·철학·지리를 통달한 명저 6백
여 권을 남겼다. 초당 좌우에 동암과 서암을 짓
고 책 1천여 권을 쌓아 스스로 즐겼다고 했다.

동암에는 다산 글씨를 집자한 '다산동암(茶山東庵)' 현판이 걸려 있다. 서암은 18제자가 차와
벗하며 밤늦도록 학문을 탐구한다는 뜻의 다성
각(茶星閣)이다. 현판은 평소 다산을 존경했다
는 추사 글씨를 집자했다. 초당 뒤편 커다란 바
위에 새긴 글자 '丁石'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약천, 그리고 차 끓일 때 사용한 다조와 연못이
꽃꽂한 선비의 일상을 보는듯하다.

동암을 지나면 '하늘 끝 한 모퉁이'란 뜻의 천애
일각(天涯一閣)을 줄인 천일각이다. 여기서 백
련사를 잇는 오솔길로 들어선다. 당시 백련사
주지 혜장은 다산을 만나 벗이자 스승, 또 제자
로 친분을 나눈다. 서로 오가던 소통의 촉매는
바로 백성을 위해 고민하던 다산의 깊은 사색
이 녹아있는 아늑하고도 예쁜 길이다.

혜장은 다산에게 차의 깊은 맛을 일깨워준 자
유로운 영혼이다. 서른 중반 백련사 주지가 된
그에게 사미승들은 '스님' 대신 '선생'이라 칭할
만큼 유학에도 능통했다. 다만 성격은 까칠했
던지 다산은 '아이처럼 순하고 부드러워라'는
의미로 아암(兒庵)이란 호를 지어준다. 이후 둘
은 경학과 선과 다도를 주고받는 학문적 동반
자로 우의를 다졌으나, 나이 마흔에 혜장이 과
도한 음주로 돌연 입적하자 다산은 만시와 제
문, 탑명을 지어 그를 추모한다. 해남 대흥사 혜
장선사 탑 비문에는 다산이 혜장을 만난 사연
을 자세히 기록했다.

순한 길 오르막 끄트머리에서 해와 달을 영접
하는 해월루를 맞는다. 발 아래로 호수처럼 잔

잔한 강진만 구강포를 가슴에 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천년고찰 백련사가 모습을 드러
낸다. 신라 문성왕 때 무염국사가 만덕사로 창
건한 이 절은 고려 8국사와 조선 8대사를 배출
한 명찰로서 결사와 차와 동백으로 유명하다.
특히 고려 말 원묘국사가 백련사를 중창하면
서 화재를 막기 위해 조성한 백련사 동백숲은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됐다.
면적 1.3ha에 동백 1천5백여 그루가 숲을 이루
고, 굴참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도
자리하며, 숲 아래는 절에서 재배하는 차밭이
펼쳐진다.

지름 20~30cm에 키가 5~7m 안팎으로 뻗
은 동백나무숲속은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다.
나무마다 번호표가 달려 있는 이곳은 11월 말
부터 등성등성 꽃을 피워 3월 말 만개하고 4월
초쯤 한꺼번에 낙화하여 땅을 붉게 물들인다.
또 월인당(月引堂) 외 명문이 없어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탑이 숲속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먼 길 재촉한 길손이 너무 일찍 온 탓인
지 가지에 꽃봉오리만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
습이 못내 아쉬웠지만, 오래된 숲에서 울려 퍼
지는 맑은 바람과 새소리에 위안을 삼는다. 나
뭇가지에서 한 번 피고, 봉오리 썩 떨어져 땅위
를 붉게 물들이며, 연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꽃을 피운다는 동백의 붉은 꽃과 초록 나뭇
잎의 두텁고 강렬한 대비를 유추하며 홀연히
그 자리를 떠난다.



조선 은거문화의 상징
강진 백운동 원림

사람들은 가끔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며 혼자서
기를 꿈꿀 때가 있다. 강진군 성전면 백운동. 월
출산을 등지고 강진다원이 펼쳐진 작은 계곡
안에 따뜻하고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백운
동 원림, 별서정원이 숨어 있다.

원림(園林)은 집에 딸린 정원에 화초와 나무,
돌과 물, 누정 등을 자연과 어울리게 조성한 작
은 숲이다. 별서(別墅)는 살림집과 가까운 경승
지에 마을과는 물리적으로 격리한 주거지로서
학문수양과 유희공간으로 활용되는 조선선비
의 은거문화를 대표하는 소박한 형태의 별장
이다.

백운암이 있던 옛 절터 아래 기슭에 일찍이 과
거에 대한 미련을 버린 이담로(1627~1701)가

- 1 '하늘 끝 한 모퉁이'란 뜻인 천일각에서는
강진만 구강포가 펼쳐진다
- 2 혜장과 다산이 친분을 나누며 오가던
오솔길에는 백성을 위해 늘 고민하던 다산의
깊은 사색이 녹아있다. 사진은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향하는 길손들의 행렬이다
- 3 신선조차 길을 멈춰 머물렀다는 정선대에서
내려다본 백운동 원림의 전경
- 4 유상곡수(流觴曲水)는 민가 정원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다



2



3

들어와 터를 잡았다. 계곡 옆 바위에는 '월출산
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
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백운동(白雲洞)을 행
서체로 새기고, 자연에 인공을 가미하여 호남
전통 원림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12대에 걸쳐
이어온 유서 깊은 이곳은 담양 소쇄원, 완도 부
용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손꼽힌다.

특히 강진에 유배 중이던 정약용이 1812년 9월
에 이곳을 다녀간 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한 나
머지 제자 초의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고,
12가지 경승을 시로 지어 백운첩을 남겼는데
현재 모습은 이를 근거로 복원했다.

대문 옆으로 석대가 솟아있고 집 뒤로는 멀리
월출산 옥판봉이 열을 지어 있다. 흐르는 계곡
물을 집 마당으로 끌어들여 연못 두 곳을 거쳐
직선으로 돌아나가는 물길 옆에 단칸 초가도
앉혔다. 민간 정원에서는 보기 드문 유상곡수
(流觴曲水)인데, 조선의 풍류를 느낄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완만한 경사면에는 매화
국화·난초 등을 심은 꽃 계단을 꾸였고, 담장 주
변은 유교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경계를 구분한 별서 특성을 잘 보여준다. 본체
뒤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한 이담로의 묘에서는
백운동 원림이 파노라마로 조망되며, 그 옆으
로 월출산 달빛길이 이어진다. 한편 강진향토
문화유산 22호로 지정된 백운동 원림은 2018
년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돼 현재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TRAVEL
INFORMATION

주소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 일원
코스 월출산 달빛길(무위사~이한영 생가
~월남사지~달빛한옥마을)
*총 5km(1시간 소요)

문의 061-430-3362

홈페이지 www.gangjin.go.kr/culture



4

글. 최장순(크리에이티브디렉터·엘레멘트컴퍼니 대표)

생각의 라이트를 켜라

기획력 기르기

기획은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행위다.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바라는 점을 글과 그림으로 가시화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정보와 객관적 데이터를 모은 뒤 반드시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얼마나 남다르게 정보를 분류·재해석하느냐에 기획의 성패가 달려 있다.

Mission 1. 만다라트 기법

'윤희유'를 한가운데 놓고 연상 이미지를 적어본다. 그리고 '윤희유'를 재정의해본다.

*33쪽 본문 참고

힘		활력
	윤희유	
추진		재기

Mission 2. 다르게 말하기

'고급휘발유'를 표현하는 나만의 방식을 생각해본다.

*예시 절대휘발유, 스페셜오일, 특급오일 등



일상이 곧 기획

기획을 다루는 책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콘셉트를 도출하는 공식, 제안서 작성법, 공식 등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기획은 결코 기획서의 동의어가 아니다.

오늘 늦잠을 잔 당신이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 고민했다면 그 행위도 일종의 기획이다. 일교차가 심한 날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갈지 생각하는 것도 기획이고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는 것 역시 훌륭한 기획 행위다. 따지고 보면 기획은 매우 일상적인 행위다.

기획(企劃)은 어떤 일을 도모하고[企], 그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것[劃]이다. 즉 도모할만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다. 같은 선상에서 기획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어떻게(How, 방법론의 차원), ‘하면(Implementation, 실행의 차원), ‘되지?(Objective·Effect, 목표·기대효과)’의 조합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조화를 이뤄야 기획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획력을 기르는 왕도는 없다. 공식도 없다. 다만,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상적 습관을 통해 기획력은 분명 증대될 수 있다.

기획이란



관찰과 정리

적어도 무언가 기획을 하는 동안에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보고 살피는 관찰력이 좋아야 한다. 관찰은 각자의 개성에 맞고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고로 지금은 이미지의 시대다. 젊은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네이버보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한다. 어디서 검색하느냐로 젊은 감각을 구분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텍스트를,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더 어린 사람들은 영상을 검색한다.

이중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해시태그 관찰’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구글 등에 해시(#)를 붙여 키워드를 검색해본다. 가령 인스타그램에 ‘#에쓰오일’을 입력하면 2천349개(2019년 2월27일 22:55 기준)의 사진이 등장한다. 회사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있다면 등장한 많은 사진들을 취합, 분류,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써볼 수 있다.

관찰을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는 반드시 정리를 한다. 현상을 묘사하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할 때 가급적 누락과 중복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중간에 개인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별도로 기록해둔다. 가령 ‘#’을 앞에 붙이고 내 생각을 적는다. 이렇게 정리된 문서를 나중에 보면 관찰 기록, 타인의 생각, 나의 생각이 구분돼 있어 나다운 기획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시태그 관찰

이번 주 팀에서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에 검색한다.

- ① 키워드 관련 사진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다.
- ② 사진별로 기록돼 있는 해시태그들을 모은다.
- ③ 해시태그와 사진을 통해 해당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한다.

관점 훈련

남다른 기획을 위해서는 동일한 현상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개성 있는 관점과 해석 능력이 단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만다라트(Mandart)’가 있다. 만다라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고교생일 당시 작성한 것으로 화제를 모은 계획표로 키워드를 추출할 때 유용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3X3 표 한 가운데 단어를 적는다. 하나의 단어에서 8개의 단어를 연상해 빈칸에 적는다. 관찰은 단어가 추출되면, 이를 중심으로 다시 8개의 단어를 뽑아보는 식으로 발상을 확장·반복해나간다. 파생된 단어들은 기획의 주제가 되는 최초의 단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다르게 말하는 연습도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르게 말하기(Allegory)’는 특정 주제 또는 대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점에서 다르게 묘사해보는 것이다. 일상 사물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바나나우유’를 ‘병아리우유’, ‘몽키밀크’, ‘White & Yellow’와 같이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려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이 형성 된다.🌟

만다라트 예시

- ① S-OIL에서 8개 단어를 추출한다.
- ② 추출된 키워드와 중심 키워드를 결합해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가령, ‘S-OIL은 스마일 에너지’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밝은	그린	썬
스마일	S-OIL	스페셜
부드러움	에너지	토양(soil)

나눔과 공유

시너지 폭발

S-OIL
변화와 성장의
화학법칙
[공유결합] 이야기

진정한 조직력이란 각자가 지닌 서로 다른 에너지를
사이 좋게 주고받으며 단단한 힘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조직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흔들림이 없다.
마치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쉽게 분리되지 않는
끈끈한 공유결합처럼 말이다.

이질성 극복하는 온전한 결합

물질의 결합력을 비교할 때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으로 구분해 말한다. 물리적 결합이란 두
가지 물질의 성분 변화 없는 분자단위 결합이거나, 제3의 매개물질이 다른 성분들 간의 결합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수소 원자 두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결합된 물 분자는 물 분자끼리 반데르
발스 힘(Van der waals force)이라는 분자 간 인력으로 물분자간 결합력이 생긴다. 이때 분자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종이 양면에 풀칠을 해서 접착력을 가질 때도 종이와 풀의 성분 변
화 없이 결합력이 생긴다. 이러한 결합이 물리적 결합이다.

반면 화학적 결합이란 분자 내의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이동으로 분자 단위의 변화를 통해 결합
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소금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 간의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우리
가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주성분인 메탄 역시 하는 탄소 한 개에 수소 네 개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탄소와 수소가 전자를 하나씩 내어 주면서 두 개 전자를 서로 공유해 결합력을 갖는다 하여
공유결합 화합물이라 한다.

1

공유결합 법칙

1월
촉매

2월
용액

3월
공유결합

4월
동소체

5월
양쪽성 물질

6월
공은 산·
무르 산

7월
에너지
보존의 법칙

8월
역결합

9월
비활성 기체

10월
헤스의 법칙

11월
오존

12월
플라즈마



글.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전기기술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촉매공학박사이자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다. 한국화학공학회
 울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다.

**화학
용어사전**



공유결합
 원자 또는 원자단의
 집합체에서 그 구성원자들
 간에 작용해 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힘 또는 결합 단위체

3

공유결합 법칙

이상적 인간관계의 원동력

우리의 세상이 공유결합처럼 서로 내어주고 받아들
 이는 인간적인 결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미움과 시기, 질투의 반발력으로 남을 밀어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충격과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대일 결합에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생길 수
 있지만 단체와 집단끼리는 단단한 금속결합과 같은
 결합력이 생길 수 있다. 개별 힘은 약하지만 집단으
 로의 힘은 엄청난 위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작은
 주전자에서 뚜껑을 여는 힘, 압력 밥솥의 힘, 태풍의
 힘이 똑같이 1기압이라 하더라도 뭉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
 석이 존재하지만 나와 관련된 물질과 사람 간의 결
 합력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
 은 정해진다. 서로 주고받음 없이 고집만 피운다면
 반발력을 생성해 밀어내게 되고 어우러짐으로 서로
 를 끌어당기면 강력한 힘을 갖는 공유결합을 이룰
 수 있다. 성공적인 화학적 결합을 꿈꾼다면 공유결
 합이 정답이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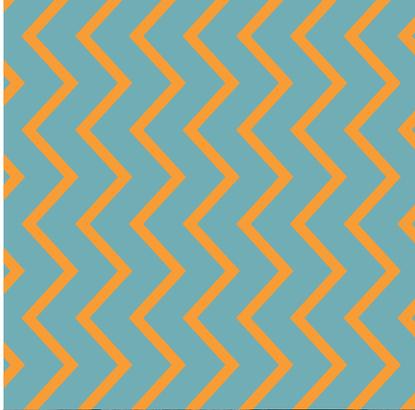
공유결합 법칙

개성이 만나 이루는

새로운 힘

공유결합은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은 화학적 결합이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핵과 전자
 로 구성돼 있으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 숫자만큼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위치해 있는데 양성자 숫자가 원자번호이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한 질량이 원자
 질량이다.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에 비해 무시할 만큼 가볍지만 전자가 하나 없는 것과 하
 나가 더 많은 것으로 원자는 변화무쌍한 성질을 나타낸다. 공유결합의 대표적 화합물인 메
 탄과 같이 화학에서의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끼리도 가능하지만 다른 원소끼리 결합해 새
 롭고도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거나 상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과 상대를 보다 안전하
 게 만들어가는 것이 공유결합의 비밀이다. 놀라운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배움과 교훈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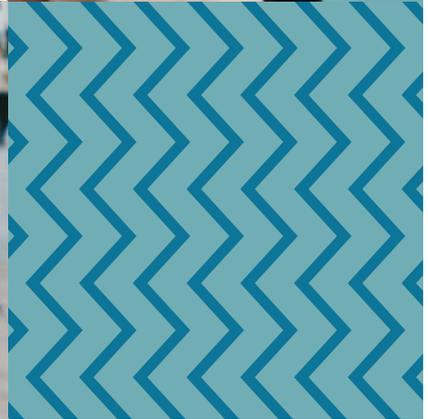


인 생 의 봄 날 을 예 술 로



[예술형] 취미 정보

첼로를 중년에 비유하기도 한다. 느린 박자 위에 얹어진 깊은 울림과 무게감이 닮아서 인 듯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악기 외에도 다양한 예술분야에 도전하는 중년이 늘고 있다. 늦었지만 오래, 더 깊이 있게 배우려는 예술 만학도들이 인생의 새 봄을 마중한다.



1월 학습형

2월 수집형

3월 예술형

4월 실리형

5월 활동형

6월 스펙형

위로의 랩소디

반려 악기

삶을 같이 하는 반려동물처럼 악기를 평생의 동반자로 같이 가까이 하자는 의미에서 '반려 악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금전적 이익이나 실용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기 하나 연주하는 것으로도 삶 자체가 풍성해진다. 마치 좋은 공연 한 편을 보면 그 여운이 오래 가듯 내가 직접 악기를 연주한다면 일상이 공연이 되고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이왕이면 클래식 악기를 추천한다. 첼로, 피아노와 같은 악기 연주는 정서적 안정은 물론 청각과 촉각 등 여러 감각을 자극해 두뇌 개발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중년부터 노년까지 꾸준히 즐길 취미생활로 제격이다.

우리나라 대표 악기상가인 종로 낙원악기상가에서는 지난해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타와 건반악기, 색소폰을 두 달간 1대1로 무료 강습을 해주겠다고 공고해 화제를 모았다. 이곳에서는 반려악기 캠페인 일환으로 수시로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도 좋다.

여기 어때요?

고전음악 온라인 동호회 'Go! classic'

1999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고전음악 웹진으로 동호회 개설 20년 역사를 자랑한다. 고전음악 애호가를 위한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 사이트라 할 만하다. 웹진과 동호회 정보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 간 악기 취미, 음악 정보를 공유하기에도 좋다.

www.goclassic.co.kr

팟캐스트 '클래식이 알고 싶다'

클래식을 알면 악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클래식 기호부터 닦을 수 있도록 요일마다 다양한 코너가 진행된다.

팟빵(www.poddbang.com) 접속 →

검색창에 '클래식이 알고 싶다' 입력

우리들의 낙원상가 블로그

약 2천 명 구독자를 보유한 '우리들의 낙원상가(enakwon)' 블로그다. 한국 악기 유통업에 일조해온 35년간 이야기를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들려준다. 다양한 악기 정보도 쏙쏙하다.

<https://blog.naver.com/enakwon>

무형문화재에게 배우는

소목공예

목공예를 취미로 하는 일반인은 많지만 대목장 또는 소목장 등 무형문화재에게 배우는 일은 흔치 않다. 몇 해 전부터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이 다양하게 마련돼 입문의 벽을 낮췄다.

우리 고유의 기술인 소목공예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오히려 요즘 시대에 유니크한 감성으로 재해석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작은 목공예품 제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세간살이를 딱딱뚝 딱 만드는 재미를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자신만의 감각으로 기성품과 다른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유일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 어려모로 보람과 의미를 챙길 수 있는 작업이다. 명장과 함께 배우는 전통공예 수업을 통해 명장들의 빼어난 장인 정신뿐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교훈을 덤으로 배울 수 있다.

여기 어때요?

서울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에게 직접 배우는 일일체험 수강부터 본격적인 전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주말에는 소목(가구), 향온주, 흥영, 궁, 남태칠 수업이 진행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13

한국문화의 집

본격적인 전수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화재 학교다. 크게 기초-연구반과 소목-대목반, 전통목가구반 등으로 나뉘며 전통공예 14개 분야 59개반 과목이 개설돼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2-9

청원산방 소목학교

서울 무형문화재 소목장이 운영하는 곳이다. 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수공구만을 사용해 가구를 만드는 방법과 전통 창조 제작방법을 배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27

여기 어때요?

<한눈에 보는 소목>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의 가치를 되짚어보며 전통 소목공예의 맛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 전통 목가구의 종류와 다양한 제작기술이 수록돼 있다.



아련한 감성으로 담은 찰나

필름 카메라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은 분야가 바로 필름 카메라 시장이다. 스마트폰의 우수한 화소력으로 사진촬영을 취미로 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낡은 필름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 보며 돌이킬 수 없는 찰나를 저장해가는 이들도 있다.

중년 세대에겐 필름카메라는 더없이 익숙한 장비인 만큼 이질감 없이 쉽게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얼마든지 무한복제와 수정이 가능한 디지털 사진과 달리 다루기도 까다롭고 고도의 촬영 실력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취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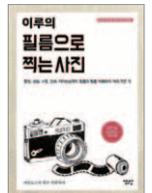
필름 한 통당 24장이라는 제한된 컷수를 생각하면 피사체를 보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꼭 필요한 한 순간을 찍기 위해 사람과 사물, 배경을 관찰하고 바라보며 더욱 신중하게 촬영한다.

필름 사진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파산한 관련 업체들도 다시 문을 열었다. 코닥은 가장 유명한 액타코롬 필름 생산을 재개했고 롤라이도 필름 신제품을 출시했다. 장비와 비용 걱정으로 필름 카메라를 서랍에 넣어놨다면 다시 꺼내도 좋을 만큼 필름 사진 시장의 부활이 기대된다. 🌟

이런 책 어때요?

<이루의 필름으로 찍는 사진> 이루

사진현상소 대표이자 사진 작가인 저자가 필름과 필름 사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필름 특성과 알아야 할 상식, 필름 카메라 기본 원리 등 필수 정보를 총망라해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여기 어때요?

필름카메라 동호회

필름카메라 동호회의 명맥을 오랫동안 이어가며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인 온라인 카페다. 서울을 비롯해 경남, 경북 등 각 지역 소모임방이 개설돼 있으며 출사 모임 소식이 꾸준히 올라와 배우와 정보공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https://cafe.naver.com/35mmcamera>

과학이 비춘 무지의 암흑

진공 펌프 & 조지프 라이트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



근대 미술 작품들 중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그림으로 사람들은 점묘법으로 그린 조르주 쇠라의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꼽고, 과학 실험을 다룬 그림으로는 영국 화가 조지프 라이트의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을 꼽는다. 그중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조지프 라이트의 작품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 즉 '이성과 계몽의 시대'로 불린 18세기 사회상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이때의 과학 실험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준다.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
1768년 캔버스에 유채·244x183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주술과 과학의 혼돈

튜브에 담긴 물감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에는 물감과 캔버스를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의 물감은 가루로 만든 천연 안료를 아마씨유에 잘 개어 만들어야 했고, 캔버스 역시 천을 무두질해 만들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도구들로 그림을 그리려면 무언가 신성하고 귀한 존재를 담아내야 했다. 18세기 초반까지 그려진 작품 다수가 종교화나 역사화 또는 군주와 귀족들의 초상화였던 이유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조지프 라이트(1734~1797·당시 비슷한 이름의 화가가 많아 신문 기자들이 ‘더비에 사는 라이트’라는 뜻으로 ‘더비의 라이트’라고 불렀다)가 그린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은 참으로 이례적인 그림이다. 이 작품은 한 여염집 거실에서 진행되는 과학 실험을 담고 있다. 머리를 기르고 붉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둥근 유리 공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중이다.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한 소녀는 공포에 질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부자지간인 듯한 왼편의 두 남자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실험에 집중한다. 오른편의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반면, 맨 왼편에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젊은 남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느라 눈 앞의 과학 실험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림 속의 머리 긴 남자는 마법사나 주술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학자다. 그는 유리 공에 새를 넣은 뒤 이 유리공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유리 공과 연결된 펌프가 보인다. 과학자는 이 펌프를 사용해 유리 공 안의 공기를 빼내려 하고 있다. 유리 안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면 새는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날 시각으로 보면 간단한 실험이지만 18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과학 실험은 마법처럼 보였을 게 분명하다. 과학자는 새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 생명을 뺏게 되니 말이다.

그림 속 계몽주의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 그림이 완성된 1768년까지도 과학자들은 산소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1770년대가 돼서야 과학자들이 산소의 정확한 개념을 발견한 사실에 비춰볼 때, 당시 그림 속 인물들은 실험을 보고 충분히 두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에게 이 실험은 마법인 동시에 윤리적으로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손도 대지 않고 한 생명체의 생명을 갖아 갈 능력이 있는 자는 과학자라기보다 사악한 마법사로 인식됐을 수 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영국은 과학이나 철학, 윤리, 도덕, 교육 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가 시민계급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림은 더 이상 군주의 초상이나 그리스 신화 같은 거창한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과학과 교육의 장면을 담게 된 것이다.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은 과장된 질은 어둠 속에 싸여있고 실험이 진

행되는 테이블에만 밝은 빛이 쬐여 있다. 화가는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무지라는 어둠을 과학이라는 빛으로 계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그림의 주제가 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화가는 테이블에 또 하나의 유명한 실험 기구를 올려놓았다. 그림 오른편, 고뇌에 빠진 남자 앞 테이블에 놓인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다. 1654년 독일 마그데부르크 시의 시장이었던 게리케는 두 개의 반구를 맞대어 그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 두 반구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보여줬다. 당시 붙어 있는 반구를 떼어내기 위해 열여섯 마리의 말이 동원됐다고 전해진다. 사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진공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는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솟쇠공으로 물을 퍼 올리는 물도둑이라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물속에 들어간 솟쇠공 안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그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장치였다. 그러나 진공의 정확한 의미와 그 위력을 처음으로 증명한 이는 독일의 과학자 게리케다. 그의 실험 도구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조지프 라이트는 뛰어난 화가인 동시에 과학에도 꽤 식견이 높은 계몽주의자였던 게 분명하다. 실제로 그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장면을 보기 위해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그림이다. 단순히 과학을 그림의 주제로 삼은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화가의 믿음을 함께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오른편 창에서 구름을 뚫고 밝은 보름달이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둠이 빛을 물리치고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 과학이 인간의 삶을 밝게 비추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화가의 메시지가 읽힌다. 

<포실리포에서 바라본 베수비오 화산>
1776~80년·
캔버스에 유채·
83.8x63.5cm





세계 시장 관통하는 큰 시야

아람코 윤활기유 연합 공식 출범

아람코 윤활기유 연합(Aramco Base Oils Alliance, 이하 기유 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사우디아람코와 우리회사를 비롯한 아람코 산하 윤활기유 자회사인 모티바(Motiva)·루브레프(Luberef) 3사는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협의 끝에 사업 연합에 관한 합의를 완료한 가운데, 아람코는 2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아람코 윤활기유 리셉션을 통해 공식 출범 소식을 대외에 알렸다.

이번 소식은 사우디아람코가 세계 최대의 윤활 사업 관련 세미나인 ICIS 콘퍼런스의 올해 런던 행사 기간 중 리셉션을 개최한 가운데 공표됐다. 아람코 자회사 고객과 업계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은 기유 연합 출범 소식에 대해 축하의 뜻과 함께 큰 관심을 표하면서 향후에 보다 나은 사업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회사를 포함해 연합한 사우디아람코 산하 윤활기유 3사는 안정적인 고 일관된 품질의 그룹 1~III 윤활기유를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한다. 이들의 전체 판매규모는 전 세계 시장점유율 14% 수준으로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유 연합 3사는 윤활기유 브랜드를 아람코듀라(aramcoDURA, Group I)·아람코프리마(aramcoPRIMA, Group II)·아람코울트라(aramcoULTRA, Group III)로 통일해 사용한다. 윤활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연구 개발(R&D) 분야의 경우 사우디아람코 주도 하에 4자 간 공동으로 추진해 판매 규모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아람코는 판매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기유 연합이 한층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브랜드 자산 관리, 기술 개발 등 포괄적인 사안들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회사는 아람코 윤활기유 연합을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해 공급 초과로 치열해진 시장 내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로 수익 증대를 실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합 내 아람코 자회사가 공급하는 윤활기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요 시장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판매 역량을 제고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공급사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합 체제 아래 효율적인 비용으로 윤활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제품 적용범위 확대 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래 주유소로 즐거운 경험

국내 주유소 최초 스마트 무인편의점 개소



우리가 국내 주유소 최초로 미래형 스마트 무인편의점 모델인 '세븐 일레븐 시그니처' 하이웨이주유소점을 통해 주유소형 편의점의 새 지평을 열었다. 3월 8일 하이웨이주유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내에 세븐 일레븐 시그니처가 새롭게 문을 연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됐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2017년 5월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IT) 기반의 미래형 플랫폼이다. 우리 회사는 계열주유소와 스마트 무인편의점을 접목해 주유소 운영 경쟁력을 향상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손잡았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하이웨이주유소점은 시그니처 모델의 핵심 IT 기술을 모두 적용해 스마트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 브랜드 캐릭터인 구도일 존을 점포 내 별도로 구성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포토존과 사진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주유소형 편의점과 차별성을 높였다. 30평 규모의 카페형 컨셉으로 구축된 실내분위기로 주유소 고객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자유롭게 방문해 기분 좋은 쇼핑을

즐길 만하다.

이 무인편의점은 출입구의 통합인증단말기를 통한 출입인증 수단과 절차를 다양화·간소화해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높였다. 또한 전자가격표시기(ESL), 고화질 폐쇄회로TV(수리캠), 유인·셀프 복합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직원호출시스템 등 최첨단 스마트 편의점 기술을 총망라해 관리자를 위한 효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관리를 병행하는 주유소 직원의 경우 주유고객 응대 등 서비스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다.

우리 계열주유소와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의 조합은 편의점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우리 회사는 계열주유소의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 소재를 발굴하고 주유소 운영효율 개선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무인편의점 개소를 통해 이상적인 미래형 편의점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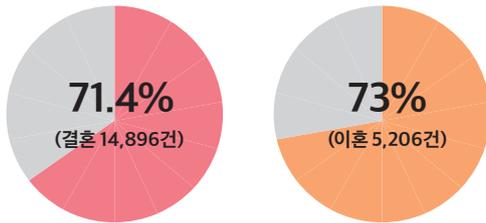


국경 넘어 한 울타리 공동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부금 전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통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중 '한국남성+외국여성' 결혼·이혼 비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기부금 현황



여성가족부 통계(2018. 9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구는 32만 가구의 96만 명에 이르고,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학생(유치원, 초·중등)이 11만 명에 육박한다. 이민, 귀화 등으로 유입되는 이들 인구는 우리와 무엇도 다를 바 없는 귀중한 이웃공동체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7년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회사는 3월 6일 본사에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7천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인 '해피 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 지원에 쓰인다. 특히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머물다 퇴소하는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주여성들의 법률상담과 사회복귀를 돕는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를 후원하는 데 활용된다.



희망으로 일구는 삶의 터전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금 전달

우리회사가 저소득가정의 화재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월 20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선진영 전무와 정연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회사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 5천만 원을 전하면서 화재 피해로 실의에 빠진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는 데 힘을 실었다.

우리회사는 2010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사회복지협의회와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드림하우스 프로그램에 동참해왔다.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생필품을 지원해 조속히 생활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10년째 어려운 이웃을 후원해 오고 있다. 앞으로 불시에 일어난 화재사고로 실의에 빠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후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캠페인을 시행해 화재 진압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노력해 왔다. 순직·부상 소방관 가정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사회안전망 강화에 조력하고 있다. 



S-OIL NEWS

MARCH 2019



Promoting Behavior of Digital Work-style

이혜준(감사2팀)
박범준(직영네트워크관리팀)
송현철(프로젝트원가관리팀)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이치성(검사기술팀)
이정일(브랜드마케팅팀)
백창용(네트워크강화팀)
최철성(BigData팀)



CEO 표창 시상

3월 5일 본사에서 CEO 표창 시상이 진행됐다. 우리회사는 디지털화에 기반한 행동양식으로 기존 제도와 절차, 관행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 제고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표창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한층 정교한 표창제도를 동인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사내 모든 업무 영역에 지속 확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표창주제(Promoting Behavior of Digital Work-style·Digital Transformation Leader)별로 총 7명이 수상한 가운데 상패와 부상이 주어졌다.

본사 사옥 글판 교체

지역사회 랜드마크로서 본사 사옥이 자리매김하는데 기능하는 글판이 봄을 맞아 교체됐다. 3월 설치된 글판에는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새싹 이미지와 김은식 시인의 작품 <봄의 기상> 중 일부 구절을 담았다.

우리회사는 시민들과 문화적 소재로 깊이 교감하고 마포 일대에서 상징성을 가진 사옥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글판을 운영하고 있다. 세 달에 한 번씩 새롭게 게시되는 글판에는 이해인·김소월·정호승 등 시인의 작품과 계절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게시해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한다.



강력하고도 완벽한 하모니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팬텀싱어> 광동현·이동신 콘서트

글. 강영옥(CSR/운영지원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팬텀싱어>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악·국악·뮤지컬·케이팝 등 각 영역의 실력 출중한 보컬리스트들은 출연과 동시에 무명을 떨치고, 그 무대를 접한 대중은 미처 살피지 못한 장르의 보석 같은 작품들에 주목하는 해안을 얻었다. 프로그램 시즌 II가 2017년 말 마무리됐지만 무대에 올랐던 공연자들은 여전히 전국 관객을 찾아 흥행몰이 중이다.

그 주인공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무대를 장악했다. 시즌 I에서 풍부한 감성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이탈리아 명곡을 불러 모든 관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광동현·이동신 듀오다. 선선한 초봄 바람이 부는 2월 27일 저녁에 본사 사옥 대강당의 250여 객석이 인근 주민과 직장인, 우리 임직원 등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영상은 네티즌이 가장 많이 본 팬텀싱어 동영상 1위에 등극했었다. 관객들은 완벽한 고음을 들려주는 로커 광동현과 힘이 넘치는 테너 이동신의 하모니에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은 셈이다. 이날 듀오는 정평이 난 <카루소>를 비롯해 <슬픈 베아트리체><빛속에서><네순도르마><걸어본다><발걸음> 등을 불렀다. 1시간 남짓 강당을 휘감는 성량에 따라 관객 가슴이 함께 진동할 정도로 뮤지션들은 최선을 다해 공연했다.

본사 사옥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무료 공연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개최된다. 단, 이달 공연은 정기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한 주 앞당겨진 3월 20일(수) 저녁에 열릴 예정이다.





기분 좋은 봄 마중

계전부봉사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동행 자전거 라이딩

글. 권영구(전기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계전부봉사단 활동이 2월 23일 태화강 일대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두 번째 봉사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갔으니 모처럼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남녀노소 불문 총 19명의 참가자들 모두가 이른 봄맞이에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이동차량에서 내려 자전거 대여소를 찾았다. 저마다 신장에 맞는 자전거로 라이딩을 시작했다. 조금 쌀쌀한 바람을 가르며 주변을 둘러보는 기분이 상쾌하다. 두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배자운 어린이도 우리 도움을 받아 홀로 질주하는 라이더로 변신했다.

이름난 심리대밭에 다다르니 대나무 자르기 체험장이 있었다. 어린이들과 함께 단단한 대나무를 잘라 속을 들여다봤다. 소소한 재미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몰랐다. 뱃속 알람이 울리는 것을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된 듯했다. 땀 흘리며 활동한 뒤 먹는 점심은 꿀맛이었다. 식사 뒤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이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마다 3월은 햇살나눔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우리 계전부는 정기보수(T&I) 작업으로 4월부터 봉사단 활동을 재개한다. 부서원들이 더 적극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은 미소 담아 큰 희망으로

사진동호회 담도폐쇄증 환아 가족사진 촬영

글. 박용원(네트워크개발팀)



본사 사진동호회 봉사단이 올해 첫 활동을 위해 2월 24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 모였다. 재능나눔 일환으로 담도폐쇄증 어린이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위한 자리다. 우리는 전국 지역을 막론하고 활동해 왔는데 부산, 전주 등에 이어 모처럼 서울에서 장비를 풀었다. 우리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2008년부터 급여우수리 나눔을 시행했다. 1만 원 미만의 급여우수리를 모으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로 기부금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2009년 4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담도폐쇄증 어린이를 위한 '밝은웃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담도폐쇄증은 쓸개관에 문제가 생겨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소화기관으로 운반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이 선천성 질환을 앓는 아기들이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진동호회는 환아 가족사진을 찍은 뒤 여러 기념품에 추억을 담아 선물해왔다.

이날 주인공은 이하준 아기 가족이다. 2017년 11월에 태어난 하준이는 담도폐쇄증 진단에 따라 이듬해 3월에 카사이 수술을 받고 뒤이어 8월 간이식 수술을 마쳤다. 1차적 수술인 카사이 수술에만 약 500만 원이 소요되고, 간이식이 필요한 경우 그 몇 배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처치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데다 수술 뒤 고가의 특수 분유를 먹여야 하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은 아기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출생 직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가족들은 실의에 빠지기 쉽고, 예쁜 아기의 성장을 스튜디오 촬영으로 기록하는 일은 더욱더 요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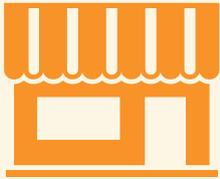
하준이는 어엿한 패밀리 룩을 차려 입고 생애 첫 가족사진을 찍었다. 앨범과 액자, DVD는 물론 사진을 활용한 머그컵, 캘린더, 시계 등도 선물 받았다. 하준이가 이대로 건강을 지키고 훗날 또 다른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말끔한 새 학기 준비

윤활생산부봉사단
청소년 동행 미용 나들이

글. 김병환(윤활생산1과)



윤활생산부봉사단이 재미있는 봉사 기획으로 청소년들과 만났다. ‘때 빼고(Go)! 광 내고(Go)’를 주제로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아이들과 미용에 나선 것이다. 만남은 2월 16일 성사됐다.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덩수룩하게 자란 머리칼을 자르고 대중목욕탕에서 말끔히 씻으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자는 취지다.

이날 우리 봉사단과 아이들은 만나면서부터 웃음꽃이 피었다. 이 발이나 목욕은 혼자 또는 부모형제와 함께하는 활동인데 어쩐지 생소한 조합에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은 정으로 서로의 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다.

시내 한 미용실에 들어앉은 아이들은 저마다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을 맡겼다. 시원하게 머리감기까지 마친 뒤 인근 대중목욕탕에 들렀다. 서로 등을 밀어주고, 목욕 끝에는 음료수도 나눠 마셨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스낵 덕분인지 아이들은 한층 허물없이 다가왔다.

식사까지 함께 마치고 헤어지는 길에 아이들을 살피니 미모에서 빛이 난다. 개운한 기분에 마음까지 상쾌하다. 더 친해진 아이들과 다음 번 만날 날이 기대된다. 🌿





03.07

강민수 전무(경영전략본부장)→
부사장(경영전략본부장)
김광남 상무보(총무부문장)→
상무(총무부문장)
이건명 상무보(Polymer영업부문장)→
상무(Polymer영업부문장)
정영광 상무보(신사업부문장)→
상무(신사업부문장)
정상훈 상무보(경영기획부문장)→
상무(경영기획부문장)
김보찬 상무보(아로마틱공장장)→
상무(아로마틱공장장)
이환일 상무보(FCC2공장장)→
상무(FCC2공장장)

03.10

김경태 상무보 대행(송유공장장)→
상무보(송유공장장)
이영기 상무보 대행(HYC공장장)→
상무보(HYC공장장)

입사

02.18 이용각(Execution Advisor.SC&D
프로젝트본부)

퇴직

02.28 이수범(운전원.HYC부 HYC과)

보직변경

02.20

김기선(일반사무직3급.경영관리팀)→
고객서비스팀

03.01

최영호(1급.포항지사장)→
동부지역본부장 보좌역
최두식(과장.정유생산부 정유2과 선임계장)→
교대과장
이재형(계장.정유생산부 정유2과 교대계장)→
정유생산부 정유2과 선임계장
박상덕(계장.정유생산부 정유2과)→
정유생산부 정유2과 교대계장
김준희(계장.HYC부 VDU과)→
HYC부 VDU과 교대계장
백정욱(계장.HYC부 VDU과 교대계장)→
HYC부 VDU과
이현경(일반사무직3급.이익개선팀)→
총무보안팀

04.01

이성규(3급.윤활유사업팀)→암스테르담지사
심용균(3급.암스테르담지사)→
윤활마케팅전략팀
신현오(4급.기유마케팅팀).이원일(5급.기유마
케팅팀)→윤활유사업팀
한아름(4급.윤활마케팅전략팀)→기유마케팅팀
장경숙(일반사무직3급.윤활유사업팀)→
윤활운영팀

지사장 임명

03.01

천준길(2급.부산지사)→포항지사장

결혼

03.01 김현주(PX생산1과)
03.03 박경목(기계1과)
03.16 김진호(PO생산과)
신상현(전기과)
장병준(FCC2과)
04.13 성기욱(용도개발/기술지원팀)

부음

02.09 한영태(장치1과) 빙모
02.16 황두환(수송팀) 부친
02.18 정호규(정유/윤활공정팀) 외조부
02.19 박윤근(안전대응팀) 외조모
02.21 강형전(남양주지사) 모친
이상훈(복리후생팀) 부친
02.26 송규석(구미지사) 빙모
03.01 이재광(PP생산과) 조부
03.02 서철진(전기과) 빙부
03.04 김동근(전기과) 모친
03.05 김광호(PX생산2과) 모친
이창호(동력6과) 모친
03.06 김성수(PO생산과) 모친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고전 속 핵심가치> 협력-겸청즉명(兼聽則明)
 가슴에 와 닿는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지현(신천주유소.울산시 북구 산업로)



<가족 추억공작소> 박정현 사우(VDU과) 가족
 사보가 제공한 기회를 가족 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아 보입니다. 이영준(유환과)



<꽃청춘 수학여행> 오감만족 도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좋은 글을 담아주어
 고맙습니다. 배아롱(신용관리팀)



<마을숲을 걷다> 부산 아홉산숲.울산 십리대숲
 곧게 자라난 대나무를 보며 올 한 해 우리회사도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안성찬(계기과)



<취미탐구생활> 수집형 취미 정보
 학창시절 LP판과 카세트테이프로 들던 아날로그 음질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정주영(안전대응팀)



<주요 경영활동>
 고객과 함께 여러 방면으로 이웃을 지원하니 보람
 있습니다. 마선락(금계주유소.경북 고령군 대가야로)



<햇살나눔>
 항상 밝고 기분 좋은 내용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훈(육상출하과)



<독자마당>
 다른 그림 찾기 퀴즈의 정답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병호(윤활생산2과)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써주세요.

01

구도인 대리!
‘행선지’ 같으면 함께 가지.

① 경유지 ② 목적지 ③ 출발지

02

문품은 법인으로
① 결제 ② 결제
할까요?

2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피커

김길현(탈황1과)
도정환(품질관리팀)
김희달(LPG팀)
정순이(기계3과 손현국 사우 가족)

휴대폰보조배터리

박승재(동력6과 박민성 사우 가족)
김유섭(아로마틱생산1과)
이영덕(안전혁신팀)
유태원(기계1과)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자동차가
‘삐까번쩍’하네.
→자동차가
‘반짝반짝’하네.

ρ

‘삐까번쩍’은 ‘반짝반짝’
하다는 뜻의 일본어
‘삐까뽀까’와 우리말 ‘번쩍’이
합쳐진 잘못된 표현입니다.

02

오늘도 행복한하루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ρ

이 문장 앞에는 듣는 주체
(여러분, 고객 등)가 생략돼
있습니다. 여기서 ‘되세요’를
쓰면 ‘여러분(고객)=하루’를
의미하게 되므로 어법상
잘못된 표현입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스-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